

소망의 별 예수!

본문: 마 2:1-3, 7-11

12/21/2025 성탄주일예배설교 (12/21/12 (북부뉴저지 극동포럼 금요기도회 설교 참고)

- “1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  
7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9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10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서론

‘소망 Hope’이란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조지 프레드릭 와츠(George Frederick Watts, 1817~1904)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많은 사람의 꺼져가는 생명을 구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림 보여주기)

“하늘에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 위에 한 여인이 홀로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발은 맨 발이며 눈은 수건으로 싸 매어 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줄이 거의 모두 끊어진 비파가 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앞을 볼 수 없는 그녀는 오직 하나만 남은 줄을 가지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절망, 그리고 처절한 사투!  
그녀에게 그 남은 단 한 줄은 소망의 줄이요, 그 한 별은 소망의 별입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박사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드리는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며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 10-11 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어떻게 유대인도 아닌 이방의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알아보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크게 기뻐하며 예물과 함께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불확실한 인생 여정 중에도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구세주 예수님과 함께 하며 소망을 갖고 메시아를 경배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 본론

1. 첫째로, 우리는 메시아의 별, 곧 소망의 별을 보아야 합니다

본문 2 절 “...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 별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별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발람이 네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다가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 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고 예언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흠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민 24:17).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새벽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계 22:16).

오늘날 우리들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미래가 상실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 저 너머 하늘에 있는 반짝이는 별같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별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소망의 별, 슈퍼스타입니다. “Jesus Christ, Super Star!”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즉 보는 대상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별들을 보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세상의 별들과 함께 헛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의 별인 J.X 를 보는 사람들은 슈퍼스타처럼 영원히 빛을 발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단 12:3).

우리 모두 소망의 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바라보게 되심으로, 영혼육 전인 구원을 받으시길 간구합니다. 구세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된 삶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2.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는 소망의 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본문 9 절 “박사들이...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

동방박사들은 메시아, 즉 구세주의 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변합니다. 영원하고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어느 것도 우리의 삶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과거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민족들을 40 년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또한, 의복이 닳지 않도록 하셨고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물 한방울도 구하기 어려운 사막에서 반석을 쳐, 물을 공급하기도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분 자체가 길이십니다. 휘장 사이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히 10:20).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 늘 인도하는 신령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도전) 무엇이 우선 순위입니까? 세상이 아닌 주님과 의 동행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창 5:24).

우리 모두 에녹처럼 늘 소망의 별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동행하시길 축원합니다.

3. 마지막으로 구세주의 구원을 체험하려는 우리는 소망의 별이 머물러 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본문 9 절 “그 별이...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박사들은 별이 머무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별은 아기가 ‘있는’ 곳에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굳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드디어 확실히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셋별을 보고 그 별의 인도로 따라오다, 드디어 그 별이 머물러 섰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문에 소망의 별의 실체인,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Option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 4:2)

메시지)

바로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정녕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눅 18:40) 있는 곳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문제들이 풀어집니다. 앞은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자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소망의 실체인 예수님을 인생 살수록 더욱 체험해가야 합니다. 과연 우리들은 소망의 닳을 어디에 두어야겠습니까?

찬송) 찬송가 539 장(통합):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닳을 주리라...  
3 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밀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우리 모두 J.X. 구세주의 은혜에 소망의 닳을 항상 내리십시오. 예수님께 인도받는 도중에 힘들다 하여 절대 그만 두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끝내는 예수님의 구원을 보며, 메시아를 경배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결론

강조)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진정한 소망의 별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맨 위에 큰 별을 장식합니다. 왜요? 바로 소망의 별 구주 J.X.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례) 소경 바디매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구원을 받아 눈이 떠졌습니다.

“46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매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9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50 소경이 걸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51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막 10:46-52).

**우리 모두 험난한 인생을 지내며 소망의 별인 예수님을 바라 보십시오.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멈춰 서서 구원해 주심을 체험하십시오.**

2 천년전 오늘 이맘 때쯤 소망의 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나셨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진정한 소망의 별이 되시고자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습니다.

영원한 소망의 별로 오신 예수님! 우리 모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경배를 드리십시오.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께 늘 소망을 둬므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날마다 이뤄가는 축복된 신앙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합심 기도) 찬 115 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

1. 찬 125 장 천사들의 노래가
2. 찬 126 장 천사 찬송하기를
3. 찬 112 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참으로 험악하고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인생의 여정을 밟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더우기, 과거 1929 - 33년 사이의 미국경제공황을 방불케 하는 최근의 경제불황에 결코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입니다. 지난 10월 말엔 프랑겐스툼 샌디로 인해 120여명이 죽고, 경제적 손실만 해도 60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금요일 오전의 커네티컷 뉴타운 초등학교의 너무나 끔찍한 총기난사사건. 5-6세의 어리디 어린 20명의 학생들을 포함한 28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 어제 뉴스에 미시간주 라피어 지역의 30개 이상의 학교가 오늘 (12/21/2012) 부터 미리 크리스마스 방학을 시작했다 합니다. 바로 오늘이 지구 마지막 날이란 마야달력에 따른 공포와 그에 따른 각종 위협으로 인한 결정이었답니다.)

최근의 이러한 너무나 뒤숭숭한 세대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진정한 소망의 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조지 프레드릭 왓츠>라는 화가가 그린 이 그림은  
<희망>이란 제목의 그림으로 한 여자가 지구를 상징하는  
커다란 공위에 위태롭게 걸터앉아 있는데 그녀의 발은 맨발이요  
그녀의 눈은 천으로 질끈 동여매어 있습니다.  
그녀는 왼손으로 수금을 잡고 있는데 수금의 줄은 다 끊기고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앞을 볼 수 없는 것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류를  
나타내고 있고, 수금의 끊어진 현은 인간의 절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한 줄 남은 그 현은 인간의 희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주는 메시지는 “인간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한 가닥 남은 희망이 있다면 끝까지  
살아가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소망 조지 프레드릭 와츠  
Hope/ George Frederick Watts

희망이라는 복잡다단한 추상명사와 정면으로 맞서 고민하고 과감하게 희망의 초상을 그려낸 화가가 있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화가인 조지 프레드릭 와츠(1817~1904)가 그린 ‘희망(1886, 테이트브리튼)’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탄 바 있는 사연 많은 그림이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때문이었다. 미국이라는 오묘한 나라의 최초 흑인 대통령을 꿈꾸며 그가 캠페인에 사용했던 그림이 바로 이 희망이라는 그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최초 흑인 대통령이었던 인권운동가 넬슨 만델라가 어두운 감방의 벽에 걸어 놓고 수도 없이 바라 보았다는 그림도 바로 이 그림이다.

조지 프레드릭 와츠는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며 오랫동안 활동했던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영국화가다. 조각을 공부하며 시작된 그의 미술인생은 비교적 다채로웠던 편이다. 가난한 피아노 조율사의 아들이었던 그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성공을 거두며 꿈에도 그리던 이탈리아로의 미술유학을 실현하기도 하였고, 런던 상류층인사들과 어울리는 개인적 영달을 맛보기도 하였다.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최초의 개인전을 연 화가(1893)이기도 했던 그는, 초상화가로도 유명했으며, 라파엘전파의 새로움을 접수하여 영향을 받기도 하며 화풍이 변용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상징주의(Symbolism)’가 그의 미술을 지배했던 것으로 미술사는 기록하고 있다. 그는 자신을 ‘펜 대신 붓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 사례) 유다의 여호사밧왕 (대하 20 장)

암몬과 모압,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성전에 모인 유다백성과 여호사밧왕은 여호와께 도움을 간구하며,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12 절) **our eyes are upon you**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5 절) 라고 알려주십니다. 이에 여호사밧왕은 노래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합니다. 그러자 암몬과 모압이 세일산 거민들을 먼저 쳐죽이고 이어 자기들끼리 싸워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유다백성은 사흘 동안이나 그들이 남겨둔 재물과 의복, 보물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27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 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28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9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30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마 9:27-30 전반).  
“” (마 20:29-34).